

한국 영·유아의 대소변 가리기 훈련습성에 관한 일 연구

崔 京 子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지도 河 英 洙 교수>

<목 차>

I. 서 론

II. 연구자료 및 방법

III. 결 과

- A. 일반적 특성(연령, 교육수준, 생활수준)
- B. 대소변 가리기 훈련을 시킨 사람
- C. 대소변 가리기 훈련의 이유
- D. 대소변 가리기 훈련시기의 결정이유
- E. 대소변 가리기 훈련의 시작순위
- F. 대소변 가리기 훈련시 훈육방법
- G. 대소변 가리기 훈련시작 전과 끝난후의 성격관계와 훈육방법과의 관계

H. 소변 가리기 훈련

- 1. 특수용어
- 2. 사용된 도구
- 3. 시작시기
- 4. 소요기간
- 5. 훈련방법

I. 대변 가리기 훈련

- 1. 특수용어
- 2. 사용된 도구
- 3. 시작시기
- 4. 소요기간
- 5. 훈련방법

IV. 고 찰

- A. 대소변 가리기 훈련의 시작시기와 훈련에 소요된 기간
- B. 대소변 가리기 훈련의 시작순위와 시기의 선정
- C. 대소변 가리기 훈련에 사용된 도구와 특수용어
- D. 바람직한 대소변 가리기 훈련을 위한 보성교육

V. 결 론

- 참고 문헌
- 영문 초록

I. 서 론

인체기능중 생리적 기능의 하나인 배설작용(배변·배뇨)은 원래 자연현상으로 처음부터 통제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후 적당한 시기(영·유아기)에 훈련을 통해서 비로소 대소변을 가릴 수 있는 능력을 터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영·유아는 지금까지 봐오던 대로 대소변 습관을 포기하고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대소변 가리기 훈련의 적당한 시기의 선정과 바람직한 훈련방법은 중요시 되어지며 특히 그 방법여하에 따라 영·유아의 사회적 태도(Social attitude)의 형성이 좌우된다.¹²³

유아는 어느 정도 어른의 도움없이 자기의 신체를 조절할 수 있고 자유롭게 활동하며 자기의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어른에 의해 보호됨으로써 비로소 안정감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대소변 가리기 훈련에 있어서도 성급하게 훈련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영·유아로 하여금 점차적으로 그러한 새로운 방법을 배우도록 도와주고 즐거운 경험이 되게 하여 자존감과 자립심을 길러주며 또한 어머니의 요구(대소변 보는 새로운 습관의 형성 훈련중 순종)와 영·유아의 요구가 상호조정되어 모아간의 심적갈등을 최소한으로 해소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와같은 대소변 가리기 훈련에 대한 연구가 등한시 되고 있고 이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에 비추어서 어머니들이 언제, 무엇을 기준으로, 얼마동안, 어떠한 방법으로 대소변 가리기 훈련 또는 훈육을 하고 있는지의 실태를 파악 규명하여 바람직한 대소변 가리기 훈련을 보편

1. Dorothy R. Marlow, *Pediatric Nursing* (Philadelphia: W.B. Saunders Co., 1969), p. 367.
 2. 하영수, 산소아과 간호학 (서울, 수문사, 1972), p. 281.
 3. 나병술, 아동발달 (서울, 대학출판, 1969), p. 112.

와 시킴과 동시에 모아보진 증진에 공헌하며 특히 모아의 심리적 안전복지에 기여코저 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가 설

- A. 우리나라 어머니들 중 대부분이 대소변 가리기 훈련의 시기를 선정할때 영·유아의 성장발달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p < 0.01$).
- B. 대소변 가리기 훈련을 1년 이내에 시작 할수록 일찍(1년 이내) 끝날 것이다($0.05 < p < 0.1$).
- C. 대소변 가리기 훈련중 입원 훈련 또는 훈육방법(특히 실수했을 때)을 적용할수록 영·유아의 성격이 좋지 못한 방향으로 변할 것이다($p < 0.01$).

II. 연구자료 및 방법

영·유아의 대소변 가리기 훈련습성에 대한 본 연구는 1973년 3월 1일부터 4월말까지 이화여자 대학교 부속병원(소아과외래 80명, 산부인과병실 20명)과 부속 모자보건소(60명), 연세의료원(가족계획실 40명, 영·유아 건강관리클리닉 40명, 산부인과병실 20명) 및 서울 대학교부속병원(소아과병동 40명)등 4개 기관에 내원 혹은 입원한 어머니(대소변가리기 훈련을 끝낸 만 2세~4세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300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대부분 문제만 주고 자필로 기술케 하거나 직접 면접하였음)를 하여 대상 전 예의 응답을 얻어 그 결과를 백분율과 χ^2 검정법에 의해 관찰 분석하였다.

III. 결 과

A. 일반적 특성

1. 연 령

조사대상자의 나이를 보면 표 1에서와 같이 최저 22세, 최고 45세까지 있으며 이중 30~40세 미만이 202예(67.3%)로 가장 많고 그외 22~30세 미만이 86예(28.7%), 40~45세 미만이 12예(4%)로 적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연령

연 령	실 수	(%)
22세~30세 미만	86	(28.7)
30세~40세 "	202	(67.3)
40세~45세 "	12	(4)
계	300	(100.0)

2. 교육수준

조사대상자 300예중 만수이상인 고졸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았고 무학은 극소수(1예, 0.3%)였으며 이중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100예(대졸 33%, 대학원졸 0.3%, 합 33.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고졸(94예, 31.3%), 중졸(61예, 20.3%), 국졸(44예 14.3%)의 순으로 적었다(표 2).

<표 2> 교 육 수 준

최 종 학 력	실 수	(%)
대 학 원 졸	1	(0.3)
대 졸	99	(33)
고 졸	94	(31.3)
중 졸	61	(20.3)
국 졸	44	(14.7)
무 학	1	(0.3)
계	300	(99.9)

3. 생업 수준

조사대상자 총 300예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대부분(258예, 86%)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였고 그의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소수(42예, 14%)였는데 이들은 주로 전문기술직(54.8%)을 위시하여 판매업(33.3%), 사무직(4.8%), 농업(4.8%), 관리직(2.4%) 등에 종사하고 있었다.

한편 이들 조사대상자들의 남편의 직업을 보면 거의 전부(98%)가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이중 대다수(83.3%)가 사무직 86예(28.7%), 판매업 67예(22.3%) 관리직 54예(18%), 전문기술직 43예(14.3%) 등에 종사하고 있어 중등도의 생활수준을 영위하고 있었고 그외 기능공, 생산공장 및 단순노동(5%), 공업 및 농업(5%), 교통 및 체신업(4.3%), 봉사직(0.3%) 등이 종

<표 3> 남편의 직업별 분포

종 별	실 수	(%)
관 리 직	54	(18)
판 매 업	67	(22.3)
전 문 기 술 직	43	(14.3)
기능공, 생산공장 및 단순노동	15	(5)
사 무 직	86	(28.7)
공 업 및 농 업	15	(5)
교 통 및 체 신 업	13	(4.3)
분 사 직	1	(0.3)
무 직	6	(20)
계	300	(99.9)

속하는 경우는 소수였으며 무직은 6예(2%)에 불과하였다(표 3).

B. 대소변 가리기 훈련을 시킨사람

대소변 가리기 훈련을 시킨사람은 직업의 유무(직업이 있는 어머니 42예중 71.5%)를 막론하고 대부분이 어머니들이었으나(255예, 85%) 그의 할머니(15예 5%), 아버지(12예, 4%), 어머니와 할머니(5예, 1.7%) 어머니와 아버지(4예, 1.3%)가 같이 시킨 경우도 소수가 있었다. 기타 가정부(1%) 어머니와 가정부(0.6%) 어머니와 누나(0.6%), 어머니와 이모(0.6%), 어머니와 아버지와 할머니(0.3%)등이 같이 시킨 경우는 극히 적었다(표 4).

〈표 4〉 대소변 가리기 훈련을 시킨 사람

훈련을 시킨 사람	실 수	(%)
어머니	255	(85)
할머니	15	(5)
아버지	12	(4)
어머니와 할머니	5	(1.7)
어머니와 아버지	4	(1.3)
가정부	3	(1)
기타	6	(2)
계	300	(100.0)

C. 대소변 가리기 훈련의 이유

대소변 가리기 훈련의 이유별 분포를 보면 「청결을 중요시한 때문」이 161예(53.7%)로 절반이상을 차지했고 그 다음 「가려줄 시기가 됐으므로」(43예, 14.3%), 「자립심을 길러주기 위해서」(29예, 9.7%), 「좋은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26예, 8.7%), 「서로가 편하므로」(14예, 4.7%), 「지능과 관계되므로」(12예, 4%) 등의 순위로 적었다. 이 밖에도 「마땅히 해야 하므로」(6예, 2%), 「좋은 성격형성을 위해」(5예, 1.7%), 「엄마의 책임이므로」(1예, 0.3%), 「아빠의 관심이 많아서」(1예, 0.3%), 「자녀교육을 위해」(1예, 0.3%), 「심취감 때문」(1예, 0.3%)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다(표 5).

D. 대소변 가리기 훈련시기의 결정이유

표 6에서와 같이 대소변 가리기 훈련의 시기를 결정한 이유를 보면 「그저 적당한 시기라고 봐서」가 205예(68.3%)로 수위를 차지했고 그의 「설수 있기 때문에」(49예, 16.3%), 「앉을 수 있기 때문에」(34예, 11.3%), 「걸을 수 있기 때문에」(5예, 1.7%), 「엄마의 일의대」(3예, 1%), 「귀찮아서」(2예, 0.7%), 「아

〈표 5〉 대소변 가리기 훈련의 이유별 분포

이유	실수 (%)
청결	161 (53.7)
지능	12 (4)
좋은 성격형성	5 (1.7)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26 (8.7)
자립	29 (9.7)
가려줄 시기가 됐으므로	43 (14.3)
서로가 편하므로	14 (4.7)
기타	10 (3.3)
계	300 (100.1)

〈표 6〉 대소변 가리기 훈련시기의 결정이유별 분포

이유	유수 (%)
설 수 있기 때문에 대소변훈련을 시켰다	49 (16.3)
않을 수	34 (11.3)
걸을 수	5 (1.7)
아기 스스로 가리는 것 같아	2 (0.7)
그저 적당한 시기라고 봐서	205 (68.3)
엄마의 임의대로	3 (1)
귀찮아서	2 (0.7)
계	300 (100.0)

기 스스로 가리는 것 같아서(2예, 0.7%) 등 대부분 영·유아측의 이유(성장 발달, 90예, 30%) 보다 어머니들의 임의대로 시기를 결정한 수가 월등히 많았음(210예, 70%)은 매우 흥미있는 일이었다(p<0.01).

E. 대소변 가리기 훈련의 시작순위

대소변 가리기 훈련중 먼저 시작한 순위중 보면 「소변가리기 훈련을 먼저 시작했다」는 경우가 233예(77.7%)로 「대변가리기 훈련을 먼저 시작했다」(50예, 16.7%), 「대변과 소변 가리기 훈련을 함께 시작했다」(17예, 5.7%) 등의 경우보다 훨씬 많았다. 또한 남아 여아의 구별없이(남아: 81.4%, 여아: 73.6%) 소변가리기 훈련을 먼저 시작하고 있었다(표 7).

〈표 7〉 대소변 가리기 훈련 시작 순위별 분포

시작 순위	실수 (%)	성별 (%)	
		남 (%)	여 (%)
대변을 먼저 시작했다	50 (16.7)	20 (12.8)	30 (20.8)
소변을 먼저 시작했다	233 (77.7)	127 (81.4)	106 (73.6)
대변과 소변을 같이 시작했다	17 (5.7)	9 (5.8)	8 (5.6)
계	300(100.1)	156(100.0)	144(100.0)

F. 대소변 가리기 훈련시의 훈육방법

대소변 가리기 훈련시의 훈육방법을 보면 영·유아가 실수하는 경우 「야단치다」가 129예(43%)로 가장 많았고 그의 「타이르다」(114예, 38%), 「때려준다」(42예, 14%), 「그냥 내버려 둔다」(9예, 3%), 「벌준다」(4예, 1.3%), 「실수한 일이 없어 잘 모른다」(2예, 0.7%) 등의 순위로 여러가지 반응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때 영·유아의 실수에 대해 벌하지 않고 타이르거나 그냥 내버려 두는 방법을 적용한 경우는 123예(41%)로 야단치거나 때리거나 벌주는 방법(175예, 58.3%)보다 적어 영·유아의 실수에 대해 이해하는 경향이 부족했음을 나타내었다.

한편 실수하는 경우 영·유아를 때리는 방법으로는 「손으로 엉덩이를 때린다」(33예, 11%)가 가장 많았고 그의 「매로 다리를 때린다」(3예, 1%), 「손과 때로 다리를 때린다」(2예, 0.7%), 「손으로 다리를 때린다」(1예, 0.3%), 「매로 엉덩이를 때린다」(1예, 0.3%), 「매로 엉덩이나 다리를 때린다」(1예, 0.3%), 「손과 빗자루로 다리나 엉덩이를 때린다」(1예, 0.3%)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었다.

또한 벌주는 방법으로는 「머리에 두손을 얹고 서있게 한다」(2예, 0.7%), 「가만히 구석에 서있게 한다」(1예, 0.3%), 「옷을 아랫도리만 벗겨 세워 놓는다」(1예, 0.3%) 등 여러가지가 있었다(표 8).

〈표 8〉 대소변 가리기 훈련시의 훈육방법 (실수했을 때)

방법	실수 (%)
타이르다	114 (38)
그냥 내버려 둔다	9 (3)
야단치다	129 (43)
때려준다	42 (14)
벌준다	4 (1.3)
실수없어 모른다	2 (0.7)
계	300 (100.0)

영·유아가 대소변을 잘 가리는 경우 대다수(94.7%)의 어머니들이 말이나 행동으로 또는 먹은 것을 주는 등 격려해 주며 칭찬해 주고 있었는데 이중 「칭찬한다」가 263예(87.7%)로 가장 많았다. 그의 「그냥 내버려 둔다」(16예, 5.3%), 「안아준다」(12예, 4%), 「칭찬하며 안아준다」(6예, 2%), 「칭찬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2예, 0.7%), 「먹을 것을 준다」(1예, 0.3%)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칭찬해 주고 있었다.

G. 대소변 가리기 훈련을 시작하기 전과 끝난 후의 성격과의 관계와 훈육방법과의 관계

대소변 가리기 훈련을 시작하기전 영·유아의 성격(어머니들이 말하는)을 보면 「고집이 있는 편이었다」가 92예(61.3%)로 그의 「운순한 편이었다」(20.7%), 「수줍은 편이었다」(7.3%), 「고집이 있고 활발한 편이었다」(2.7%), 「활발하고 명랑한 편이었다」(2.7%), 「운순하고 고집이 있는 편이었다」(2.0%), 「활활한 편이었다」(1.3%)보다 훨씬 많았다. 기타 「메쟁이었다」(0.7%) 「성급했다」(0.7%), 「극성스러웠다」(0.7%)의 반응은 소수에 불과했다.

한편 이와 같은 결과를 훈련후의 성격과 비교해 보면 「고집이 있는 편이었다」의 92예 중 훈련전 보다 「고집을 더 부린다」(15.3%), 「장난이 더 심해졌다」

〈표 9〉 대소변 가리기 훈련을 시작하기 전과 끝난후의 성격과의 관계

끝난후 시작전	고집을 더 부린다	성격이 난폭해 졌다	장난이 심해졌다	반항적 이 됐다	의존 적 이 됐다	까다로 워졌다	순종 을 잘 한다	의 젓 해 졌다	조 심 성 스 터 워 졌다	뚜 뚝 해 졌다	독 립 성 강 해 졌다	활 발 해 졌다	계
온순한 편이었다	4(2.7)	7(4.7)	7(4.7)		1(0.7)	1(0.7)	4(2.7)	1(0.7)	1(0.7)	2(1.3)	2(1.3)	1(0.7)	31(20.7)
고집이 있는 편이었다	23(15.3)	14(9.3)	15(10)	8(5.3)	6(4)	4(2.7)	14(9.3)	2(1.3)		2(1.3)	4(2.7)		92(61.3)
수줍은 편이었다		2(1.3)	3(2)				3(2)	2(1.3)			1(0.7)		11(7.3)
고집이 있고 온순한 편이었다	2(1.3)					1(0.7)							3(2)
고집이 있고 활발한 편이었다	1(0.7)	2(1.3)		1(0.7)									4(2.7)
때 쟁 이 였 다		1(0.7)											1(0.7)
성 급 한 편 이 였 다				1(0.7)									1(0.7)
활 발 하 고 명 령 항 한 편 이 였 다				1(0.7)			2(1.3)	1(0.7)					4(2.7)
극 성 스 터 워 다								1(0.7)					1(0.7)
살 살 한 편 이 였 다		1(0.7)				1(0.7)							2(1.3)
계	30(20)	27(18)	25(17)	12(8)	6(4)	7(4.7)	23(15.3)	7(4.7)	1(0.7)	4(2.7)	7(4.7)	1(0.7)	150

(10%), 「성격이 난폭해졌다」(9.3%), 「반항적이다」(5.3%), 「의존적이다」(4.0%), 「까다롭다」(2.7%)의 경우(46.6%)가 「순종을 잘한다」(9.3%), 「독립심이 강해졌다」(2.7%), 「의젓해졌다」(1.3%), 「뚜뚝해졌다」(1.3%)등으로 성격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었다는 경우(14.6%) 보다 월등히 많았음은 흥미 있었다(표 9).

이와 같은 결과는 훈련전 「온순한 편이었다」의 경우(31예, 20.7%)에 있어서는 「성격이 난폭해졌다」(4.7%) 「장난이 심해졌다」(4.7%), 「고집을 더 부린다」(2.7%) 「반항적이다」(0.7%), 「까다롭다」(0.7%)가 「순종을 잘한다」(2.7%), 「독립심이 강해졌다」(1.3%), 「뚜뚝해졌다」(1.3%), 「의젓해졌다」(0.7%), 「조심성 스테워졌다」(0.7%), 「활발해졌다」(0.7%)의 경우 보다 많아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한편 대소변 훈련중 실수했을때의 훈육방법과 훈련이 끝난후 성격과의 관계를 보면 「순종을 잘한다」 「의젓해졌다」 「독립심이 강해졌다」 「조심성 스테워졌다」 「뚜뚝해졌다」 「활발해졌다」의 경우에는 훈육방법(타이르거나 그냥 내버려둔다 14.0%, 야단치거나 때려준다 14.0%)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반면에 「고집을 더 부린다」 「성격이 난폭해졌다」 「반항적이다」 「의존적이다」 「까다로워졌다」 「장난이 심해졌다」는 경우에 있어서는 타이르거나 그냥 내버려두는 훈육방법(22.1%)보다 야단치거나 때려주거나 벌주는 방법등을

적용한 경우(4.7%)가 훨씬 많았음은 엄한 훈육방법을 적용할 수록 영·유아의 성격이 좋지않은 방향으로 변하는 경향을 뚜렷이 나타내 보였다($p < 0.01$).

Ⅱ. 소변가리기 훈련

1. 특수 용어

소변가리기 훈련시 사용된 특수용어 유무를 검토해 보면 「쉬」라는 용어를 사용한 예(286예, 95.3%)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그의 「이야하자」(1예, 0.3%), 「오줌누자」(1예, 0.3%) 등을 사용한 경우는 적었다.

2. 소변가리기 훈련시 사용된 도구

소변가리기 훈련시 사용된 도구는 「깡통」을 사용한 경우가 128예(42.7%)로 수위를 점했고 그의 「요강」(79예, 26.3%), 「변기」(72예, 24%), 「푸라스틱 컵」(7예, 2.3%), 「병」(4예, 1.3%), 「기저귀」(3예, 1%) 「변소」(3예, 1%), 「아쿠메나」(2예, 0.7%), 「무응답」(1예, 0.3%), 「하수구」(1예, 0.3%)등 여러가지 도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중에는 전혀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아쿠메나」소변을 보게한 경우도 소수(0.7%)나마 있었다.

또한 남녀별로 사용된 도구의 종류를 보면 남아인 경우에는 대다수(124예, 79.5%)가 「깡통」을 이용하였으나 여아인 경우에는 반수 이상(74예, 51.4%)이 「요강」을 사용하고 있었음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본다(표 10).

〈표 10〉 소변 가리기 훈련시 사용된 도구별 분포

도 구	실수 (%)	성별 (%)	
		남 (%)	여 (%)
변 기	72 (24)	13 (8.3)	59 (41)
광 통	128 (42.7)	124 (79.5)	4 (2.8)
오 강	79 (26.3)	5 (3.2)	74 (51.4)
푸라스틱컵	7 (2.3)	7 (4.5)	
별	4 (1.3)	4 (2.5)	
기 저 귀	3 (1)		3 (2.1)
변 소	3 (1)	2 (1.3)	1 (0.7)
아 무 데 나	2 (0.7)		2 (1.4)
무 응 답	1 (0.3)		1 (0.7)
하 수 구	1 (0.3)	1 (0.6)	
계	300 (99.9)	156 (99.9)	144 (100.1)

3. 소변 가리기 훈련의 시작시기

소변 가리기 훈련을 시작한 시기의 분포를 보면 가장 빨리 시작한 경우가 3개월이었고 가장 늦게 시작한 것이 27개월이었는데 이중 1년이내에 시작한 경우가 203예(67.7%)로 2년이내에 시작한 경우(96예, 32%)보다 많았고 2년이후에 시작한 예(0.3%)는 극소수였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7~12개월에 시작한 경우가 168예(5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3~18개월(77예, 25.7%)이었으며 그외 3~6개월(35예, 11.7%), 19~24개월(19예, 6.3%), 25~27개월(1예, 0.3%)에 시작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또한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가 비슷한 시기(7~12개월 남아: 81예, 51.9%, 여아: 87예, 60.4%)에 소변 가리기 훈련을 시작하고 있었다(표 11).

〈표 11〉 소변 가리기 훈련의 시작시기별 분포

시 기	실수 (%)	성별 (%)	
		남 (%)	여 (%)
3~6개월	35 (11.7)	19 (12.2)	16 (11.1)
7~12 "	168 (56)	81 (51.9)	87 (60.4)
13~18 "	77 (25.7)	42 (26.9)	35 (24.3)
19~24 "	19 (6.3)	14 (9)	5 (3.5)
25~27 "	1 (0.3)		1 (0.7)
계	300 (100.0)	156 (100.0)	144 (100.0)

4. 소변가리기 훈련에 소요된 기간

소변가리기 훈련에 소요된 기간별 분포를 보면 최단 1개월에서 최장 36개월간이 걸렸는데 이중 7~12개월간이 걸려서 소변통제가 가능해진 경우가 121예(40.3%)로 수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이 1~6개월이 소요되어(95예, 31.7%), 1년 이내에 완료된 경우가 13~24개월(13~18개월간 58예, 19.3%, 18~24개월간 19예,

6.3%)이 소요되는 경우보다 많았다. 그외 25~36개월(25~30개월 6예, 2%, 31~36개월 1예, 0.3%)이 소요된 경우는 극히 적었고 또 남녀별 소요기간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7~12개월간 소요: 남아 56예, 35.9% 여아 65예, 45.1%로 가장 많음)(표 12).

〈표 12〉 소변 가리기 훈련에 소요된 기간별 분포

소요기간	실수 (%)	성별 (%)	
		남 (%)	여 (%)
1~6개월간	95 (31.7)	53 (34)	42 (29.2)
7~12 "	121 (40.3)	56 (35.9)	65 (45.1)
13~18 "	58 (19.3)	34 (21.8)	24 (16.6)
19~24 "	19 (6.3)	10 (6.4)	9 (6.3)
25~30 "	6 (2)	2 (1.2)	4 (2.8)
31~36 "	1 (0.3)	1 (0.6)	
계	300 (99.9)	156 (99.9)	144 (100.0)

a. 소변가리기 훈련시작의 시기와 훈련에 소요된 기간과의 관계

소변가리기 훈련시작의 시기와 훈련에 소요된 기간과의 관계를 보면 생후 7~12개월에 시작하여 1~6개월간 걸려 통제가 가능해진 경우와 생후 7~12개월에 시작하여 7~12개월이 걸린수가 각각 60예(20%)로 수위를 절하였고 그 다음이 생후 13~18개월에 시작하여 7~12개월간이 소요된 경우(37예, 12.3%)였다. 그외 생후 7~12개월에 시작하여 13~18개월간(32예, 10.7%) 13~18개월에 시작하여 1~6개월간(19예, 6.3%), 13~18개월에 시작하여 13~18개월간(18예, 6%), 3~6개월에 시작하여 7~12개월간(14예, 4.7%), 19~24개월에 시작하여 7~12개월간(10예, 3.3%), 7~12개월에 시작하여 19~24개월간(10예, 3.3%), 3~6개월에 시작하여 1~6개월간(8예, 2.7%), 19~24개월에 시작하여 1~6개월간(8예, 2.7%), 3~6개월에 시작하여 13~18개월간(7예, 2.3%), 7~12개월에 시작하여 25~30개월간(6예, 2%), 3~6개월에 시작하여 19~24개월간(5예, 1.7%), 13~18개월에 시작하여 19~24개월간(3예, 1%), 19~24개월에 시작하여 19~24개월간(1예, 0.3%), 25~27개월에 시작하여 13~18개월간(1예, 0.3%), 3~6개월에 시작하여 31~36개월간(1예, 0.3%)등 소요된 순위별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12개월이내(주로 7~12개월)에 훈련을 시작하는 경우가 12개월이후에 시작했던 경우보다 일찍(12개월 이내) 끝나는 경향을 나타내 보였다(0.05 < p < 0.1)(표 13).

5. 소변가리기 훈련의 방법

소변가리기 훈련의 방법별 분포를 보면 표 14에서와

<표 13>

소변가리기 훈련의 시작시기와 소요 기간 의 관계

소요시간(개월)	1~6	7~12	13~18	19~24	25~30	31~36	계
시작시기							
3~6 개월	8(2.7)	14(4.7)	7(2.3)	5(1.7)		1(0.3)	35(11.7)
7~12 "	60(20)	60(20)	32(10.7)	10(3.3)	6(2)		168(56)
13~18 "	19(6.3)	37(12.3)	18(6)	3(1)			77(25.7)
19~24 "	8(2.7)	10(3.3)		1(0.3)			19(6.3)
25~27 "			1(0.3)				1(0.3)
계	95(31.7)	121(40.3)	58(19.3)	19(6.3)	6(2)	1(0.3)	300(100.0)

같이 여타까지 방법으로 훈련하고 있었으며 이중 「3시간 간격」(147 예, 49%), 「2시간 간격」(106예, 35.3%), 「1시간 간격」(24예, 8%), 「30분 간격」(11예, 3.7%), 「4시간 간격」(5예, 1.7%)등 일정한 간격(주로 2~3시간 간격)으로 소변을 보게한 경우가 대다수(97.7%)였고 「안절부절해 하면」(2예, 0.7%), 「몸짓이 엉거주춤하면」(2예, 0.7%), 「쉬라고 하면」(1예, 0.3%), 「짜증내면」(1예, 0.3%), 「눈 알이 빨개지면」(1예, 0.3%) 등 몸짓이나 표정을 기준으로 하는 훈련방법은 적었다.

<표 14> 소변 가리기 훈련의 방법 분포

방 법	실 수	(%)
30 분 간 격	11	(3.7)
1시간 "	24	(8)
2시간 "	106	(35.3)
3시간 "	147	(49)
4시간 "	5	(1.7)
몸짓이 엉거주춤 하면	2	(0.7)
안절부절하면	2	(0.7)
“쉬”라고 하면	1	(0.3)
짜증 내면	1	(0.3)
눈알이 빨개지면	1	(0.3)
계	300	(100.0)

I. 대변 가리기 훈련

1. 특수용어

대변 가리기 훈련시 특수용어의 분포를 보면 대부분(283예, 94.3%)이 특수용어를 사용했는데 이중 「응가」라고 사용한 경우가 148예(52.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응아」(57예, 20.2%), 「응」(23예, 8.1%), 「은나」(22예, 7.8%), 「똥」(9예, 3.2%), 「꽁가」(6예, 2.1%), 「쉬」(4예, 1.4%), 「은냐」(2예, 0.7%) 「꽁아」(2예, 0.7%)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똥싸」 「똥아」 「응나」 「꽁」 「은빠」 「딩」 「은야」 「또」 「꽁가」 「관나」(3.5%)등은 극소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면 표준어인 「응가」라고 사용한 경우가 148예(52.3%)로 많았으나 표준어 아닌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135예, 47.7%)

(표 15).

<표 15> 대변 가리기 훈련시 특수용어별 분포

용 어	실 수	(%)
응	23	(8.1)
응가	148	(52.3)
응아	57	(20.2)
은나	22	(7.8)
은냐	2	(0.7)
꽁가	6	(2.1)
똥	9	(3.2)
쉬	4	(1.4)
꽁아	2	(0.7)
기타	10	(3.5)
계	283	(100.0)

2. 대변 가리기 훈련시 사용된 도구

대변 가리기 훈련시 사용된 도구를 보면 「변기」를 사용한 경우가 108예(3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종이」(96예, 32%), 「요강」(91예, 30.3%), 「변소」(2예, 0.7%), 「깡통」(1예, 0.3%) 「하수구」(1예, 0.3%), 「다당」(1예, 0.3%),의 순위로 적었다.

남녀별 도구의 사용을 보면 남아인 경우 「종이」를 사용한 경우가 많은데(71예, 45.5%) 비해 여아인 경우에는 「요강」을 가장 많이(61예, 42.3%) 사용했다. (표 16).

<표 16> 대변 가리기 훈련시 사용된 도구별 분포

종 류	실수 (%)	남 (%)		여 (%)	
		실수	(%)	실수	(%)
변 기	108 (36)	51	(32.6)	57	(39.6)
종 이	96 (32)	71	(45.5)	25	(17.4)
요 강	91 (30.3)	30	(19.2)	61	(42.3)
깡 통	1 (0.3)	1	(0.6)		
하 수 구	1 (0.3)			1	(0.7)
마 당	1 (0.3)	1	(0.6)		
변소(재래식)	2 (0.7)	2	(1.3)		
계	300 (99.9)	156	(99.9)	144	(100.0)

3. 대변 가리기 훈련을 시작한 시기

대변 가리기 훈련을 시작한 시기를 보면 빠르게는 3개월, 늦게는 30개월에 시작했는데 이중 12개월이내(특히 7~12개월 45.3%, 3~6개월 9%)에 시작한 수가 163예(54.3%)로 절반이상을 접했고 그 다음이 2년이내(13~18개월 38%, 19~24개월 6.7%)에 시작한 예가(134예, 44.7%), 2년이후에 시작한 예는 소수(3예, 1%)였다.

한편 대변 가리기 훈련의 시작시기와 남녀별 차이를 보면 남아인 경우 13~18개월에 시작한 수가 가장 많았는데(63예, 40.4%) 반하여 여아는 7~12개월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것(74예, 51.4%)으로 보아 여아가 남아 보다 다소 일찍 대변 가리기 훈련을 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표 17).

<표 17> 대변 가리기 훈련을 시작한 시기별 분포

시 기	실수 (%)	성 별 (%)	
		남 (%)	여 (%)
3~6개월	27 (9)	15 (9.7)	12 (8.3)
7~12 "	136 (45.3)	62 (39.8)	74 (51.4)
13~18 "	114 (38)	63 (40.4)	51 (35.4)
19~24 "	20 (6.7)	15 (9.6)	5 (3.5)
25~30 "	3 (1)	1 (0.6)	2 (1.4)
계	300 (100)	156 (100.1)	144 (100.0)

4. 대변 가리기 훈련에 소요된 기간

대변 가리기 훈련의 소요기간별 분포를 보면 최단 1개월에서 부터 최장 36개월이 걸렸는데 이중 12개월이내에 완료된 경우가 283예(79.3%) 대부분이었고 그 다음으로 24개월이내(60예, 20%)였고, 25개월 이후(2예, 0.7%)는 소수였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7~12개월간 소요된 경우가 121예(40.3%)로 수위였고 그의 1~6개월간(117예, 39%) 13~18개월간(46예, 15.3%) 19~24개월간(14예, 4.7%), 25~31개월간(1예, 0.3%), 32~36개월간(1예, 0.3%)등의 순위로 적었다.

<표 19> 대변 가리기 훈련의 시작시기와 소요된 기간과의 관계

소요기간(개월)	1~6	7~12	13~18	19~24	25~30	31~36	계
3~6 개월	6(2)	10(3.3)	7(2.3)	4(1.3)			27(9)
7~12 "	58(19.3)	54(18)	19(6.3)	3(1)	1(0.3)	1(0.3)	136(45.4)
13~18 "	41(13.7)	49(16.3)	18(6)	6(2)			114(38)
19~24 "	11(3.7)	8(2.7)		1(0.3)			20(6.7)
25~30 "	1(0.3)		2(0.7)				3(1)
계	117(39)	121(40.3)	46(15.3)	14(4.7)	1(0.3)	1(0.3)	300(100.0)

또한 대변가리기 훈련에 소요된 기간을 남녀별로 보면 남아의 경우는 7~12개월 걸린것이 65예(41.7%)로 가장 많으나 여아의 경우는 1~6개월간 걸린것이 58예(40.2%)로 많아 여아가 남아보다 훈련에 소요된 기간이 짧은 경향을 나타냈다(표 18).

<표 18> 대변 가리기 훈련에 소요된 기간별 분포

기 간	실수 (%)	성 별 (%)	
		남 (%)	여 (%)
1~6개월	117 (39)	59 (37.8)	58 (40.2)
7~12 "	121 (40.3)	65 (41.7)	56 (38.9)
13~18 "	46 (15.3)	25 (16)	21 (14.6)
19~24 "	14 (4.7)	6 (3.8)	8 (5.6)
25~31 "	1 (0.3)		1 (0.7)
32~36 "	1 (0.3)	1 (0.6)	
계	300 (99.9)	156 (99.9)	144 (100.0)

a. 대변가리기 훈련의 시작시기와 소요기간과의 관계

대변 가리기 훈련의 시작시기와 훈련기간과의 관계를 보면 7~12개월에 대변 가리기 훈련을 시작해서 1년이내(1~6개월간 걸려 완료 19.3%, 7~12개월간 걸려 완료 18.0%)에 완료된 경우(37.3%)가 13~18개월에 시작해서 1년이내(1~6개월간 소요 13.7%, 7~12개월간 소요, 16.3%)에 완료되는 경우(30.0%)나 3~6개월에 시작해서 1년이내(1~6개월간 소요 2%, 7~12개월간 소요 3.3%)에 완료된 경우(5.3%) 보가 많았다. 그의 7~12개월에 시작해서 13~18개월간(6.3%), 13~18개월에 시작하여 13~18개월간(6%), 19~24개월에 시작해서 1년간(1~6개월간 소요 3.7%, 7~12개월간 소요 2.7%)이 소요되어 통제가 가능한 경우(6.4%), 3~6개월에 시작해서 13~18개월간 소요된 경우(2.3%), 13~18개월에 시작해서 19~24개월간 소요된 경우(2%), 3~6개월에 시작해서 19~24개월간 소요된 경우(1.3%), 7~12개월에 시작해서 19~24개월 소요된 경우(1%), 25~30개월에 시작해서

13~18개월간 소요된 경우 (0.7%) 등의 순위로 12개월 이내에 시작하는 경우가 12개월 이후에 시작하는 경우보다 짧은 기간(12개월이내)에 통제가 가능해진 경향(42.6%)을 보이었다(0.05 < p < 0.1). 기타 7~12개월에 시작해서 25~30개월간 소요(1예, 0.3%)된 경우와 31~36개월간 소요된 경우(1예, 0.3%) 19~24개월에 시작해서 19~24개월간 소요(1예, 0.3%), 25~30개월에 시작해서 1~6개월간 소요(1예, 0.3%)된 경우도 있었다. (표 19)

5. 대변 가리기 훈련방법

대변 가리기 훈련방법을 보면 매일 배변습관에 따라 「아침 9시경」(54예 18%), 「아침 먹고 난후」(22예, 7.3%) 「아침 8시경」(20예, 6.7%) 「아침 10시경」(18예, 6%), 「아침에 일어나자 마자」(13예, 4.3%), 「점심 먹고 난후」(10예, 3.3%), 「아침 11시경」(5예, 1.7%), 「저녁 먹고 난후」(5예, 1.7%), 「낮 12시경」(4예, 1.3%) 등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훈련

<표 20> 대변 가리기 훈련 방법 분포

방법	실수	%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아침 9시경	54	(18)
	아침 먹고 난 후	22	(7.3)
	아침 8시경	20	(6.7)
	아침 10시경	18	(6)
	아침에 일어나자 마자	13	(4.3)
	점심 먹고 난 후	10	(3.3)
	아침 11시경	5	(1.7)
	저녁 먹고 난 후	5	(1.7)
	낮 12시경	4	(1.3)
얼굴표정이나 몸짓등을 살펴서	힘 줄 때	41	(13.7)
	얼굴 빛이 이상해지면	34	(11.3)
	얼굴이 붉어지면	29	(9.7)
	얼굴표정을 봐서	11	(3.7)
	안절부절 할 때	14	(4.7)
	응가소리 할 때	4	(1.3)
	옷벗는 시늉을 할 때	3	(1)
	쭈그리고 앉을 때	3	(1)
	배아픈 시늉을 할 때	2	(0.7)
	몸짓이 이상할 때	2	(0.7)
	종이를 찾을 때	2	(0.7)
	방구 계속 쫓으면	2	(0.7)
	기 타	2	(0.7)
계	300	(100.2)	

시킨 경우 (151예, 50.3%)가 「힘줄때」(41예, 13.7%) 「얼굴 빛이 이상해지면」(34예, 11.3%) 「얼굴이 붉어지면」(29예, 9.7%) 「얼굴표정을 봐서」(11예, 3.7%) 「안절부절 할 때」(14예, 4.7%) 「응가 소리 할 때」(4예, 1.3%), 「옷벗는 시늉을 할 때」(3예, 1%), 「쭈그리고 앉을 때」(3예, 1%), 「배아픈 시늉을 할 때」(2예, 0.7%), 「몸짓이 이상할 때」(2예, 0.7%) 「종이를 찾을 때」(2예, 0.7%) 「방구 계속 쫓으면」(2예, 0.7%) 기타 (0.7%) 등 얼굴 표정이나 몸짓등을 살펴 대변을 보도록 훈련한 방법(49.7%) 보다 약간 더 많았다 (표 20).

IV. 고 찰

서울지구 4개기관(이화여자대학교 부속병원과 모자 보건소, 연세의료원, 서울대학교 부속병원)에 내원 혹은 입원한 어머니 300명을 대상으로 대소변 가리기 훈련의 시작시기, 소요기간, 훈련기준, 훈련방법 및 혼육(실수했을 때) 방법 등에 대해서 관찰, 분석하였다.

1. 대소변의 훈련시기와 훈련에 소요된 기간:

Mussen과 Conger 및 Kagan⁴⁾에 의하면 대소변 가리기 훈련의 시작시기는 일정하지 않으며 미국인 어머니인 경우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에 있어 높은 경우(중류이상) 보다 일찍(9~14개월) 시작하는 경향이 있고 영국인 어머니인 경우 반대로 사회 경제적 수준이 중류이상에 있어 빨리 시작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하였는데 반하여 Corday⁵⁾는 영유아가 혼자 앉을 수 있고 비교적 일정한 시간에 대소변을 보게될 때 비르소 대소변 가리기 훈련을 시작함이 좋다고 하였고 그 시기를 생후 12개월 이후(신경조직의 발달이 완전해서 대소변을 배설시키려는 노력과 변의나 뇨의가 일치되므로)로 보았다. 본 조사의 경우 반수이상(대변 54.3%, 소변 67.7%)이 1년이내(주로 7~12개월)에 대소변 가리기 훈련을 시작하였으며 1년이후~2년반에 시작한 경우는 적었고 또한 사회 경제적 수준별 차이나 소변 가리기 훈련의 시작 시기에 따른 남녀의 차이(남: 51.9%, 여: 60.4%)는 거의 없다.

그러나 대변 가리기 훈련에 있어서는 여아(7~12개월 51.4%, 13~18개월 35.4%)가 남아(7~12개월 39.8%, 13~18개월 40.4%)보다 다소 일찍 시작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4) Paul H. Mussen, John J. Conger and Jerome Kagan,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New York: Harper and Row Co., 2nd Print 1970) p.236.

5) Robert J. Corday, M.D., The Toilet Training and "the terrible twos," *the Journal of Clinical Pediatric*, 1967, Jan. p. 41

Mussen과 Conger 및 Kagan⁶은 남아보다 여아가 신체적 반응이 빠르고 배우는 속도가 빨라 훈련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았다고 보고 하였다. 그러나 Hoffman⁷이 Sears, Maccoby, Levin을 인용한바에 의하면 대소변가리기 훈련에 소요된 기간은 최단 수주, 최장, 1년 반(16개월간의 소요기간)이었으며 그중 대부분이 6개월간이 경과되어 통제능력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반하여 Davis와 Havighurst⁸는 6개월 이전에 대변가리기 훈련을 시작해서 6개월만에 완료된 예가 가장 많았고 특히 소변가리기 훈련에 있어서는 6개월 이전에 시작하여 1년만에 완료된 예가 많아 대변가리기 훈련에 소요된 기간보다 소변가리기 훈련에 소요된 기간이 길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저자의 경우는 대소변의 구별없이 최단 1개월, 최장 36개월간으로 넓은 간격의 차이(35개월간의 기간)를 나타내었고 또 대변가리기 훈련에 있어 남아(7~12개월간 65예, 41. %로 가장 많았다)보다 여아(1~6개월간 58예, 40.2%가 가장 많았다)인 경우에 소요기간이 짧았으며 특히 소변가리기 훈련에 있어 7~12개월간 소요된 예가 가장 많았음(40.3%)은 Mussen과 Conger, Kagan, Davis 및 Havighurst의 결과(49%)와 대동소이 하였다.

2. 대소변가리기 훈련의 시작순위와 시기의 선정: Marlow⁹, Breckenridge & Vincent¹⁰ 및 「하」¹¹등의 의하면 대소변가리기 훈련의 시기 선정은 영유아의 육체적, 정신심리적 성장발달을 기저로 하여 혼자 앉을 수 있고 설수 있으며 쉽게 걸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신경조직의 발달로 요도나 항문괄약근의 조절이 완전하고 또 배설작용에 대해 흥미를 갖는 시기로 말을 모방하기를 좋아하는 시기에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였으며 특히 Corday¹²는 항문괄약근의 조절이 요도괄약근의 조절보다 빨라 대변가리기 훈련을 먼저 시작함이 좋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본 조사에 있어서는 「설수 있거나, 앉을 수 있거나, 걸을 수 있을 때 대소변가리기 훈련을 시작했다」 등 영유아의 성장발달을 기준으로 해서 시기를 결정된 경우는 소수(90예, 30%)에 불과했고 반면에 대부분(210예, 70%)의 어머니들이 「그저 적당한 시기라고 생각해서」 「아무때나」 「귀찮아서」 등 뚜렷한 이유 없이 훈련의 시기를 결정하고 있었으며 (p<0.01) 또한

대소변가리기 훈련의 순위에 있어서도 대다수(77.7%)가 소변가리기 훈련을 먼저 시작하고 있었음은 영유아의 소변보는 횟수가 대변보는 횟수보다 많으므로 어머니들이 소변가리기 훈련을 먼저 시작한 소치라고 사려되며 이 방면에 대한 선도대책이 중요시된다고 본다. 그러나 한편 대소변가리기 훈련방법에 있어서는 대소변의 구별없이 영.유아가 봐오던 습관에 따라 대부분(소변: 97.7%, 대변: 50.3%)이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훈련하고 있었음은 다행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3. 대소변가리기 훈련에 사용된 도구와 특수용어: 대소변가리기 훈련에 사용된 도구중 배변시 사용된 것을 보면 「변기」 「종이」 「요강」을 가장 많이(98.3%) 사용하였는데 특히 남아의 경우는 「종이」에(71예, 45.5%), 여아인 경우 「요강」을 사용했는 예(61예, 42.4%)가 가장 많았다. 한편 소수(1.6%)에 있어서는 「하수구」나 「마당」에 직접 보도록 하거나 적은 「깡통」에 보이는 등 공중보건상 극히 불합리한 방법으로 훈련시키고 있었음은 무시할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된다. 대소변가리기 훈련중 사용된 용어에는 대변의 경우 「응가」 「응아」 「응」 「은나」, 소변의 경우 「쉬」 「이야라자」 등 여러가지가 있었으나 대변가리기 훈련시 사용된 용어의 종류가 더 많았고 대부분이 대변에는 「응가」(52.3%) 소변에는 「쉬」(95.3%) 등 표준어발 사용하고 있었다.

4. 바람직한 대소변가리기 훈련을 위한 모성교육: Blake¹³과 Marlow¹⁴는 대소변가리기 훈련에 있어 어머니들이 사랑과 이해심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경우는 영유아의 적개심(훈련자체에 대한)을 누를 수 있어 효과적으로 훈련을 시킬 수 있으나 반대로 처음부터 엄한 훈련을 적용하는 것은 영유아에게 불필요한 혼돈과 노여움, 좌절감 및 불안을 초래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영.유아가 훈련중 잘못하거나, 설수했을 때 핀잔을 주거나 심한 불만을 나타내 보이거나 벌을 주면 영유아는 어머니의 사랑을 거부당하는데 대한 공포감을 갖게되며 이와 같은 공포는 효과적인 대소변가리기 훈련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절차 확 매되어 어른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 계속적으로 두려운

6) Paul H. Mussen, John J. Conger and Jerome Kagan, *Op. Cit.* p. 236.

7) M.L. Hoffman f L.W. Hoffman: *Child Development Research* (New York:Russell Foundation 1964) p. 41.

8) Paul H. Mussen. John J. Conger and Jerome Kagan, *Op. Cit.*, p. 236

9) Dorothy R. Marlow. *Op. Cit.*, p. 367.

10) Breckenridge and Vincent. *Child Development*. (Philadelphia:W.B.Saunders Co., 1965.) p. 248.

11) 하영수 *Op. Cit.*, p. 281.

12) Robert.J. Corday. M.D. *Op. Cit.*, p. 41

13) Florence G. Blake, *The Child, His Parents and The Nurse*. (Philadelphia:Lippincott Co., Copy Write 1954. Fifth Printing) p. 149.

14) Dorothy R. Marlow, *Op. Cit.* p. 367.

을 갖게 되고 특히 심한 경우에는 늘어나 그의 정상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도 제약을 받게 된다고 역설하였다. 더욱 실수했을 때 야단치고 때리며 벌주는 등의 엄한 징벌을 가하게 되면 영유아는 증오심을 더 갖게 되고 반항하게 되며 성격에 따라 영유아가 외향성인 경우는 증오를 밖으로 발산시키는 경향이 있으나 내향성이면 자기혐오에 빠지게 된다.¹⁵

그러므로 태소년 가리기 훈련중 영유아가 무의식적으로 잘모르고 저지른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벌을 주고 야단치며 때리는 것은 좋지 못한 방법이며 오히려 깊은 애정과 이타심을 가지고 부드러운 태도로 타 이르고 정서적으로 복돋우어 주므로 영·유아로 하여금 안정된 감정으로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 반성하고 시정하여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영유아의 바람직한 정서발달에 있어 안정된 환경은 가장 중요¹⁶하며 또 좋은 교육이란 3대의 밀접한 관계를 가진 서로 다른 측면에서 강조되어질 수 있는바¹⁷ 이는 ① 가르치는 것 ② 칭찬하는 것과 인정해 주는 것 ③ 잘못된 언행에 벌을 주는 것 등이 있으나 영유아에게는 가급적 벌주는 일을 삼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칭찬이란 「선을 가르치는 힘」¹⁸이 되므로 영·유아의 교육은 무엇보다도 칭찬하면서 지도함을 본체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태소년 가리기 훈련방법에 있어 너무 심하게 많은 잔소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배우는 과정이 지연되고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¹⁹

저자의 경우 태소년 훈련중 잘못하거나 실수했을 때 말로 타이르거나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123예, 41%)보다 야단치거나 때리거나 벌을 주는 등의 엄한 훈육방법을 적용한 경우(175예, 58.3%)가 더 많았고 한편 태소년 가리기 훈련후 영유아의 성격이 좋지 않은 방향(고집을 더 부린다. 20%, 성격이 난폭해졌다. 18% 반항적이다. 8%, 의존적이다. 4%, 까다로워졌다. 4.7%, 장난이 심해졌다. 17%)으로 변하는 경우일수록 더 엄한 훈련을 적용하고 있었음(p<0.01)은 우리나라 지식층의 어머니들 (대부분 고졸이상 64.6%)에 있어서도 영·유아의 발달 내지는 지도방법에 대한 상식이 부족함을 여실히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어머니들에게 영유아 건강관리클리닉, 모자보건소, 산과병동 등에 「어머니 교실」을 마련하여 정규적 교육을 실시하고 또 수시로 상담에 응하므로 어머니들로 하여금 영유아의 성장·발달 내지 지도방법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와 주어 어머니들로 하여금 태소년

가리기 훈련의 이유, 시기, 방법을 올바르게 적용하고 특히 훈련중 잘못하거나 실수했을 때에도 사랑과 인내심을 가지고 너그럽게 대해 주며 계속 잘한 것에 대해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므로 영유아로 하여금 즐거운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고 또한 어머니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청결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터득하게 하므로 새로운 태소년 가리기 습관을 형성하고 동시에 좋은 사회적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V. 결 론

서울지구 이대부속병원 및 부속모자보건소, 연세의료원, 서울대 부속병원에 내원 혹은 입원한 어머니(태소년 가리기 훈련을 이미 끝낸 만 2~4세의 어린이를 키우고 있는) 300명을 대상으로 태소년 가리기 훈련의 시작시기, 훈련에 소요된 기간, 훈련방법, 훈육방법, (실수했을 때)등을 조사 관찰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 대상자중 대부분(67.3%)이 30~40미만의 어머니로 최소연령 22세, 최고연령 45세였다. 또한 대다수(194예, 64.7%)가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가정주부(258예, 86%)였고 직업을 가진 예는 적었다(42예, 14%).

한편 남편중 대다수(69.0%)가 사무직(28.7%), 판매업(22.3%), 관리직(18%) 등에 종사하고 있었고 중등도의 생활수준을 영위하고 있었다.

2. 태소년 가리기 훈련은 직업의 유무(직업이 있는 어머니 42예중 71.5%)를 막론하고 주로 어머니(255예 85%)가 직접하고 있었고 또 훈련의 이유(어머니들이 말하는)를 보면 「청결을 중요시한 때문」이 161예(53.7%)로 절반이상을 차지했고 그외 「가려줄 시기가 됐으므로(14.3%), 「자립심을 길러주기 위해서」(9.7%), 「좋은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8.7%) 「서로가 편하므로」(4.7%), 「지능과 관계되므로」(4%), 기타(5.0%) 등의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다.

3. 태소년 가리기 훈련의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대부분(210예, 70%)의 어머니들이 「그저 적당한 시기라 생각해서」, 「아무때나」, 「귀찮아서」 등 뚜렷한 이유없이 임의로 결정하고 있었고 영유아의 성장·발달(실수 있거나, 앉을 수 있거나, 걸을 수 있을 때)을 기준으로 해서 훈련의 시기를 결정한 예(30%)가 적었음은

15) 이태영, 가정에서의 자녀지도 (서울 한국사회 복지연구소 1970.) p. 219.

16) 나병술, Op. Cit., p. 112.

17) 이태영, Loc. Cit., p. 219.

18) 박종신 역, 꾸짖지 않는 교육(서울, 문화각 1965.) p. 59.

19) 이종진박사 집필, 당신의 어린이(서울, 남산소년 교호상담소 발행 1955.) p. 38.

중요시 되었다($p < 0.01$).

또한 대소변중 대부분(233예, 77.7%)이 소변 가리기 훈련을 먼저 시작하고 있었다.

4. 대소변 가리기 훈련중 영유아가 잘못하거나 실수했을 때 반수이상(175예, 58.3%)이 야단치거나 벌을 주거나 때리는 등 엄한 훈육방법을 적용하고 있었고 달로 타이르거나 그냥 내버려두는 경우(123예, 41%)는 소수로, 대부분(64.7%) 지식층의 어머니들이 영·유아의 발달 내지 지도방법에 대한 상식이 부족함을 나타내었다.

한편 대소변 가리기 훈련후 영유아의 성격이 좋지않은 방향(「고집을 더 부린다」 20%, 「성격이 난폭해졌다」 18%, 「반항적이다」 8%, 「의존적이다」 4%, 「까다로워졌다」 4.7%, 「장난이 심해졌다」 17%)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을수록 더 엄한 훈육방법을 적용하고 있었음은 중요시되는 점이라고 보았다($p < 0.1$).

5. 대소변 가리기 훈련을 시작한 시기를 보면 대다수(대변: 54.3%, 소변: 67.7%)가 1년내(주로 7~12개월)에 시작하였고 1년이후에 시작한 경우는 적었다.(대변: 45.7%, 소변: 32.3%)

한편 소변 가리기 훈련의 시작 시기별 남녀의 차이(7~12개월에 남: 51.9%로 가장 많고 여: 60.4%로 가장 많다)는 없었으나 단 대변 가리기 훈련의 경우 여아(7~12개월 51.4%, 13~18개월 35.4%)가 남아(7~12개월 39.8%, 13~18개월 40.4%) 보다 다소 일찍 시작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대소변 가리기 훈련에 소요된 기간은 최단 1개월, 최장 36개월간으로 넓은 간격의 차이(35개월 간격)를 나타내었는데 이 중 대소변의 구별없이 12개월이내에 완료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대변: 79.3%, 소변: 72%) 1년이상 소요된 경우는 적었다(대변: 20.7%, 소변: 28%)

소변 가리기 훈련에 소요된 기간별 남녀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7~12개월: 남 56예 35.9%, 여, 65예 45.1%), 대변 가리기 훈련에 있어서는 남아의 경우(7~12개월 소요, 65예, 41.7%로 가장 많았다)보다 여아에 있어(1~6개월 소요, 58예, 40.2%로 가장 많았음) 다소 훈련에 소요된 기간이 짧은 경향을 나타냈다.

한편 대소변 가리기 훈련의 시작시기와 소요기간을 보면 12개월이내에 시작하는 예에 있어 12개월이후에 시작하는 예보다 일찍(1년내) 끝나는 경향이 있었다($0.05 < p < 0.1$).

6. 대소변 가리기 훈련방법에 있어 대부분(소변: 97.7%, 대변: 50.3%) 대소변의 구별없이 영·유아가 봐오던 배변 배뇨습관에 따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대소변을 가리게 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었고

배변 훈련에 사용된 도구로는 「변기」 「종이」 「요강」 등의 순위로 많았으며 (98.3%), 특히 남아의 경우 대부분이 (42.5%) 「종이」에 보이고 있는데 비해 여아에게는 「요강」을 사용케한 경우(42.3%)가 그의 다른 도구를 이용한 경우보다 많았다.

한편 소수이지만 「하수구」나 「마당」에 보게 하는 (0.7%) 등 공중보전상 불합리한 방법으로 훈련시키는 경우도 있었음은 무시할 수 없었다.

대소변 가리기 훈련시 사용된 용어에는 대변을 「응가」 「응아」 「응」 「은나」, 소변은 「쉬」 「이야하자」 「오줌누자」 등 여러가지 있었으나 그중 표준어(대변볼때 「응가」 52.3%, 소변볼 때 「쉬」 95.3%)를 사용한 예가 많았다.

끝으로 본 논문을 완성하는데 있어 시종일관 세심한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장 하영수 교수님께 깊은 감사말 드리며 또한 자료 수집에 있어 적극 협력해 준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병원 인·유아건강관리클리닉과 보자보건소, 연세의료원 가족계획실, 서울대학교 부속병원 간호과 및 신소아과 교신원(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제위께 진심으로 감사말 드리는 바입니다.

참 고 문 헌

- Benz, Gladys S., *Pediatric Nursing*, Saint Louis: Mosby Co., 1964.
- Blake, Florence G., *The child, his parents and the Nurse*, Philadelphia: Lippincott Co., 1967.
- Breckenridge and Vincent, *Child Development*, Philadelphia: W. B. Saunders Co., 1965.
- Corday, Robert J. M. D., Toilet Training and "the terrible two's" *Clinical Pediatric*, 1967.
- Hoffman, Martine L. and Hoffman, Lois Wladis, *Child Development Research* New York: Russell Foundation, 1964.
- Jersild, A. T., *Child Psychology*, New Jersey: Maruzen Co., 1961.
- Leavitt, S. R., Gofman, H. and Havin, D., "A Guide to Normal Development in the child", *Nursing Outlook*, 13:56, Sep' 1965.
- Marlow, Dorothy R., *Pediatric Nursing*, Philadelphia: W.B. Saunders Co., 1969.
- Medinnus, G. R., *Reading in the Psychology of Parent Child Relations*, New York: Wiley, Inc., 1967.
- Mussen, Paul H., Conger, John J. and Kagan

- Jerome.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New York : Happer and Row Co., 1970.
- Tompson. H.. *Physical Growth and Manual of Child Psychology*. New York : Houghton Mifflin Co., 1954.
- 교육대학교 교과교재 편집위원회 공저, *아동발달과 지도*, 서울, 교육출판사, 1967.
- 김세완, *지혜와 사람의 교육*, 서울, 광명출판사, 1963.
- 나병술, *아동발달*, 서울, 대학출판사, 1969.
- 남억우, 김진양 공저, *아동심리학*, 서울, 왕문사, 1966.
- 박중신, *꾸짖지 않는 교육*, 서울, 문화각, 1965.
- 오천석, *교육심리*, 서울, 현대교육총서 출판사, 1962.
- 이종기, *어린이 교육의 이해*, 서울, 신아문화사, 1950.
- 이종진, *당신의 어린이*, 서울, 남산소년교호상담소, 1955.
- 이택영, *가정에서의 자녀지도*, 서울, 한국사회복지연구회, 1970.
- 장인현의 3인, *인간의 행동발달과 환경*, 서울, 수문사, 1971.
- 하영수, *산소아과 간호학*, 서울, 수문사, 1972.

=ABSTRACT=

STATISTICAL STUDY ON HABITUAL METHODS OF TOILET TRAINING FOR INFANT AND TODDLER

CHOI KYUNG JA

Directed by Young Soo, Ha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Nursing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observed on habitual methods of toilet training for infants and toddlers in Korea thru 300 mothers at four medical institutions (Ewha Woman's University Hospital, Ewha Maternal and Child Health Center, Severance Hospital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with a design to analyze beginning time, duration of period, methods employed, motives, equipments used, special terminology used for the subject training.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generalize the proper methods of toilet training, and also to contribute a better psychological education for the mother and child. The results obtained from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Majority of (67.3%) observed were in the age category between 30 and 40 years, and dominant numbers (64.7%) were housewives with high level of education and from middle class family background.
2. In the most cases (85%), toilet training was carried out by mothers(including wives who had a job) while more than half of mothers (53.7%) maintained their important motive for the training was "due to having high regard for cleanliness"
3. As for the time of beginning toilet training, finding indicated that starting period was decided (70%) at inconsiderate descretion of each mother, whereas, only minority group (30%) represents the cases where mother started the training when they consider the child was physically and psychologically ready.

Also greater number (77.7%) started bladder training prior to that of bowel.

4. It is noticeable that in course of training a large number of mothers (48.3%) applied strict training method when the child proper toileting, and the more rigid and strict in the training, the more malformation of personality of the infant and toddler were seen after the training period ($P < 0.01$).
5. Over the half of the total cases denoted (bowel 54.3%, bladder 67.7%) starting period before one year and in most cases (bowel 79.3%, bladder 72%)the training was accomplished within 12 month, and therefore it was noted that earlier start(before 1 year) shortened the training period (with 12 month).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infants in both starting period and duration of period in bladder training, however, in bowel training there was a tendency that female started earlier(7-12 months needed, 51.4%) than the male (13-18 months needed, largest number 41.4%), and also in cases of female the period for needed for training were shorter than the cases of male.
6. Many a number (bowel 50.3%, bladder 97.7%) employed the method of continuous toileting at regular interval in accordance with that of child's habit formed before training. Equipment used were variou kinds, however, pieces of paper for male (45.5%) and piss pot or bedpot (42.3%) for female were common, on the other hand, "Eung-ga" for defecation (52.3%) and "Shii" for the urination (95.3%) were most standard expression that used during the training period.